



1

ARARIO MUSEUM & GALLERY

프리즈 삼청 나이트의 밤 산책을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안국역에서 가깝기 때문만이 아니다. 코헤이 나와, 트레이시 에민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는 아라리오 뮤지엄이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료로 개방될 뿐 아니라 인도의 여성 역사를 특유의 관점으로 다룬 날리니 말라니의 개인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갤러리와 뮤지엄 사이에 있는 중정애선 라이브 재즈 공연과 함께 샴페인과 맥주가 제공될 예정이다. 밤 산책의 시작점으로 이보다 훌륭할 순 없다.

☞ 서울 종로구 율곡로 83
 ☎ 9월 7일, 23:00까지.

→ Nalini Malani, 'My Reality is Different', 2023, Animation.



2

GALLERY HYUNDAI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전시의 여세를 몰아 프리즈 시즌에 <성능경의 망친 미술행각>을 준비했다. 한국 실험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성능경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신관에선 기하학적인 추상의 도구로 기호로서의 감정과 언어, 도시와 삶 등의 주제를 풀어낸 작가 사라 모리슨의 전시 <Pinecones and Corporations>를 만날 수 있다. 제목이 은유하는 자연과 산업의 광경들이 기하학적인 화면의 구성으로 생생하게 살아난다.

☞ 서울 종로구 삼청로 8, 14(신관)
 ☎ 9월 7일, 24:00까지(17:00 오픈닝 리셉션).

→ 성능경, '검지' 중 일부, 1976.



3

ART SONJE

삼청 나이트에는 프리즈 VIP 티켓을 소지한 사람들을 위해 미술관 전체를 밤 10시까지 무료로 연장 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 보려면 조금 빨리 도착해도 좋겠다. 한국의 근대성을 탐구하는 회화 작가 서용선의 개인전 <내 이름은 별강>, 신체가 살아 있는 조각으로 제시되는 퍼포먼스 설치 작품 <뿔 길 & 니나 바이어: 필드트립>, 조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 <오프사이트>가 열린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도슨트 프로그램과 아티스트 토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볼 것.

☞ 서울 종로구 율곡로 87
 ☎ 9월 7일, 22:00까지(프리즈 VIP 소지자 무료).

→ 서용선, '사가모이 월', 2019.

FRIEZE SEOUL

Art Night Map

editor PARK SEHOI, PARK HOJUN
 illustrator MYCDAYS

9월 5일부터 7일, 프리즈 서울 2023이 열리는 기간에 서울은 아트의 도시로 변한다. 5일 한남, 6일 청담, 7일 삼청동에서 열리는 갤러리들의 야간 전시와 곳곳의 파티를 즐기 위한 아주 상세한 지도.



4

HAKGOJAE

학교재 본관에선 사실적인 형상 회화로 한국 현대 회화의 묘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우성의 개인전이 펼쳐진다. 거대 담론이 사라진 탈역사 시대에 인간과 사랑, 평온의 언어로 평면을 표현하는 이우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관에선 표현의 방향은 이우성 작가와는 구분되는 추상이지만, 사람의 가치를 찾는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지근육의 개인전이 열린다.

☞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 9월 7일, 22:00까지.
 → 지근육, '교자-형태(종돌기)', 202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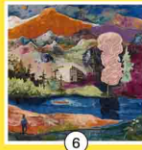
KUKJE GALLERY

올해 예술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는 아니시 카푸어가 '회화만' 전시한 사건이었다.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설치미술가 아니시 카푸어의 회화 작품, 작가가 혼자 그리고 혼자 감상만 하던 다수의 작품들이 이번 프리즈 기간 국제갤러리를 통해 삼청동에서 선보인다. 인간의 신체 기관과 선혈을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이미지, 평면에서 튀어나온 듯 거친 입체들이 새롭다. 한편 국제갤러리 한옥에서는 세계의 주술사로 변모 중인 양해규 작가의 작품들이 디스플레이 형태로 전시된다.

☞ 서울 종로구 삼청로 54
 ☎ 9월 7일, 23:00까지.
 → Anish Kapoor, 'In-between II', 2021.

TIP 삼청동을 산책하는 순서

한남이나 청담과는 달리 삼청의 갤러리들은 걸어서 이동할 만큼 좁은 지역에 몰려 있어 밤 산책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안국역에서 내려 아라리오 뮤지엄의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하고 중정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한잔 마시고 난 후 산책을 시작한다. 율곡로를 따라 열린송현녹지공원에 전시된 거대한 철제 파빌리언 '하늘소'의 밤 풍경을 감상한 후 갤러리 현대의 전시를 관람하고, 샛길을 통해 아트 선재로 향한다. 학교재를 둘러 국제를 지나 삼청동길을 천천히 걸어 PKM 갤러리를 돌아보고, 초이앤초이 갤러리에서 열리는 파티로 수미쌍관의 밤을 완성한다. 이 기사의 번호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이다. PKM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야경을 놓치지 말 것.



6

CHOI & CHOI GALLERY

프리즈 서울 부스엔 참가하지 않은 갤러리 '초이앤초이'지만, 이날의 파티 분위기에는 빠지지 않는다. 독일 작가 우베 헤넨켄, 피에르 크놉의 <달콤한 풍경, 미지의 행인들(Sweetscapes and Strangos)> 2인전이 열린다. 독일의 19세기 비디마이어 양식을 그대로 따라 환상적인 색감으로 표현한 헤넨켄의 풍경화와 마치 영혼이라도 있는 듯 생동하는 피에르 크놉의 풍경화를 비교해 감상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작은 파티도 열릴 예정이니 슬쩍 구경을 해봐도 좋겠다.

📍서울 종로구 팔판길 42
🕒 9월 7일, 23:00까지.

→ Pierre Knop, 'Mountain Rain', 2023.



7

PKM GALLERY

삼청동에서 가장 훌륭한 경치를 자랑하는 PKM에서는 이 기간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작가로 선정된 구정아의 개인전 <공중부양>이 열린다. 야광 별들이 빛나는 평면 작품 '세븐 스타즈' 시리즈, 공공미술 형태로 시작해 한국 현대미술에 작은 방점을 찍은 '스케이프 파크' 시리즈 등이 과거 그의 대표작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선 책과 드로잉, 2D와 3D 프린트, 정태적인 조각과 부유하는 설치 등 이질적인 매체로 구성된 신작들을 선보인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7길 40
🕒 9월 7일, 22:00까지.

→ 구정아, 'MYSTERIOUSSS', 2017, 3D animation.

7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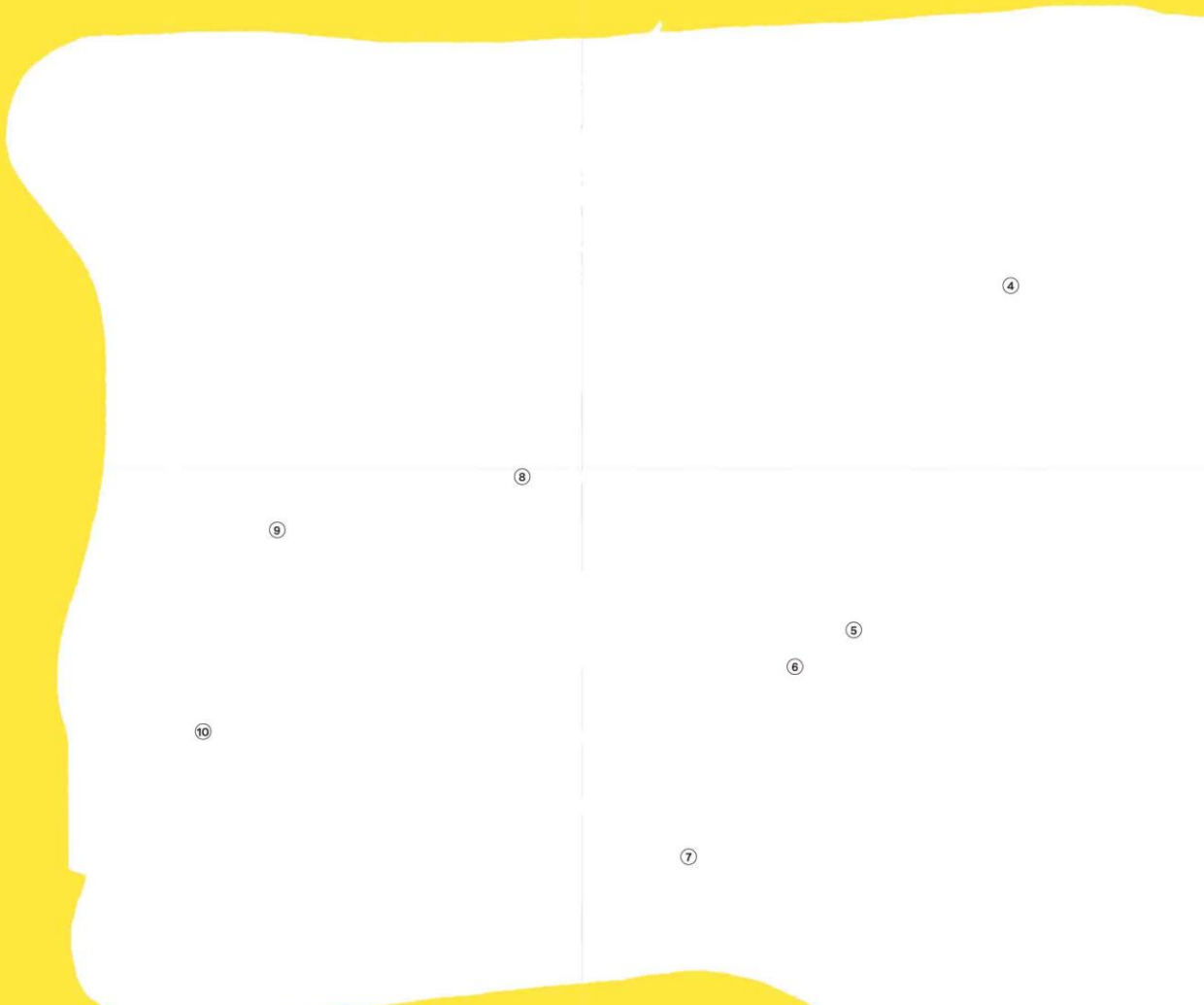
4

3

1

2

GUIDE



1

THADDAEUS ROPAC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갤러리 담당자의 말이다. 프리즈 서울의 영향도 있지만,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야간 개장에 맞춰 갤러리를 찾는 방문객 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밤 11시까지 갤러리를 열기로 한 이유다. 2층에선 ‘도널드 저드(Donald Judd)’의 개인전이, 새로 확장한 1층에선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개인전이 9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아들인 플래빈 저드가 아버지인 도널드의 전시 기획을 맡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22-1
 ⌚ 9월 5일, 23:00까지.
 → Donald Judd, 'Untitled', 1989.



2

GALLERY BATON

‘갤러리 호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연달아 위치한 여러 갤러리를 산책하듯 둘러보는 걸 가리키는 말이다. 갤러리 바톤은 타데우스 로팍에서 고작 30초 거리라 함께 둘러보기 수월하다. 통유리창을 이용해 밖에서도 전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가 어렵다. 청담 나이트 당일, 저녁 10시까지 야간 개장하는 갤러리 바톤에 들른다면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하는 이재석 작가의 개인전을 이재석 작가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6
 ⌚ 9월 5일, 22:00까지.
 → 이재석, 'Carrier_2', 2023.



3

VSF

독서당로를 걸어 내려가다 보면 숨은 보물 같은 갤러리 VSF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숨은 보물이라는 표현을 쓴 건 VSF의 위치가 꽃가게와 편의점 사이에 살짝 위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VSF가 세심하게 준비한 보물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한남 나이트 기간에는 ‘니키 리(Nikki Lee)’의 개인전 <Parts: Revisited>가 열린다. 야간 개장은 밤 9시까지이며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은 작가가 직접 갤러리에 머물며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간단한 케이터링도 제공된다.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79
 ⌚ 9월 5일, 21:00까지.
 → Nikki S. Lee, 'Part (2)', 2003.



4

THISWEEKENDROOM

이태원으로 넘어가기 전 빼먹지 말고 둘러야 하는 곳이다. 젊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참새 방앗간'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디스퀼랜드룸은 이승희 작가의 개인전 <End of Summer>를 9월 9일까지 연다. 여담이지만, 이승희 작가는 1994년생으로 이 지면에 실린 아티스트 중 가장 젊다. 오후 5시부터 작가가 진행하는 도슨트 투어가 열리며 핑거푸드도 제공한다. 갤러리로 향하는 길에 세탁소와 칼국수집이 나타나더라도 지도를 의심할 필요 없다. 바르게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2길 30
 ⌚ 9월 5일, 21:00까지.

→ 이승희, '포커페이스(후라의 산수)', 2023.



5

PACE

작년 8월 31일 페이스 갤러리 앞을 지나가던 사람은 분명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림만 걸려 있는 곳인 줄 알았던 곳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으니 말이다. 페이스는 올해도 1층부터 3층 전부를 사용해 초대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 오프닝 파티를 연다. 그러나 작년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란 전언이다. 갤러리 회장인 마크 글림처는 물론 전시 참여 작가인 '요시토모 나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오픈일인 5일에는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7
 ⌚ 9월 5일, 22:00까지.

→ Yoshitomo Nara, 'Haze Days', 1998.



6

LEEUM

한남동에서 아트를 주제로 축제가 열리는데 국내 대표 미술관 격인 리움에 빠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프리즈 서울 부스에 참여하지도, 상업 갤러리도 아니지만 리움이 한남 나이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까닭이다. 저녁 시간에만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한남 나이트에 리움을 찾는 것보단 7일에 방문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김범 전시는 7월 27일부터 12월까지지만, 강서경 작가의 전시가 9월 7일에 오픈이라 7일에 가면 두 전시를 모두 볼 수 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 9월 5일, 23:00까지.

→ 강서경, '산', 2020-2021, 철에 도색, 실, 체인, 바퀴.



7

LEHMANN MAUPIN

파티를 연다. 디자인 부스는 물론 바비큐와 술도 제공한다. 심지어 초청장이나 사전 예약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오픈이다. 다시 말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리만 머핀의 이 파티는 데이비드 살레의 개인전 <World People>의 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한남 나이트에 참여하는 갤러리 중 이태원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파티가 끝나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동해 흥을 이어가기 쉽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3
 ⌚ 9월 5일, 21:00까지.

→ David Salle, 'Muscles', 2023.



8

P21

이태원을 중심으로 동쪽에 독서당로가 한 축이라면 반대편엔 경리단길을 축으로 모인 갤러리들이 있다. 이왕이면 언덕을 내려가며 하나씩 관람하는 편이 비교적 수월하다. 시작은 소월로에서 살짝만 내려오면 마주치는 P21이다. 평소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해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을 위해 한남 나이트 당일만 개장 시간을 밤 9시까지로 늘렸다. 7명의 국내외 작가가 각자 '에로스'를 탐구한 그룹전 <EROS>를 관람할 수 있다.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74
 ⌚ 9월 5일, 21:00까지.
 → Xiyadie, 'Gate (Tiananmen)', 2016.



9

WHISTLE

경리단길을 터벅터벅 5분 정도 오르면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왼쪽으로 몸을 돌려 한 블록만 더 걸으면 휘슬 갤러리가 나온다. 9월 23일까지 열리는 '에이메이 카네야마(Eimei Kaneyama)'의 개인전 <Future Days>는 재일 교포 3세인 작가가 한국에 거주하며 3년 동안 준비한 전시다. 평소엔 저녁 7시까지만 운영하지만 한남 나이트에는 문 닫는 시간을 2시간 늦췄다. 프리즈 VIP를 대상으로 전시와 작품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맞춤형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13길 12, 3층
 ⌚ 9월 5일, 21:00까지.
 → Eimei Kaneyama, 'Chaotzu', 2022.



10

ESTHER SCHIPPER

지난해 8월 31일 문을 연 에스더슈퍼는 '여기에 갤러리가 있었네?' 싶은 이태원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다. 갤러리 오픈 겸 왁자지껄한 파티를 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오프닝 리셉션과 야간 개장만 준비했다. 한남 나이트가 열리는 5일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열리는 '앵절라 불럭(Angela Bulloch)'의 개인전 <Slapping Pythagoras>가 그 주인공이다. 파티는 아니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샴페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6가길 6
 ⌚ 9월 5일, 23:00까지.
 → Angela Bulloch, 'One Bean, One Vote', 2023.

GUIDE

- ①
- ②
- ③